

그 지하철 뒤편,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

허명도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차량본부 지축정비지회장

회장이 운동장

지난 7월 21일에 MBC 스트레이트 261회 “그 지하철 뒤편,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가 방영되었다. 지하철을 정비하는 노동자들이 본인들 스스로도 모르게 20년,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화학물질, 유기용제에 노출되고 있는 열악한 실태와 그로 인해 혈액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다. 이미 2023년 9월부터 노동조합은 지회 발행물을 통해 공사에 노동자들의 안전권, 건강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공사가 이를 회피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적해 왔다. 신문과 방송으로까지 다루어진 지 어느덧 넉 달 남짓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아직도 달라진 것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혈액암 집단 발병에 대해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대책 마련을 약속할 것만 같은 태도를 보였다. 아주 잠시는 불신과 기대가 공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 당장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차량 중정비 분야 정비공장만 보아도 여전히 독성이 매우 강한 세척액, 세척제가 혼합된 세척기에서 나오는 증기가 그대로 공장에 퍼지는 공간에서 다 함께 호흡하며 일하고 있다. 공사 측은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화학제품을 이미 친환경으로 교체한 지 오래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작업자들은 여전히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근처에 잠시도 있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심지어 현재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성분 이름만 나와 있고 세부 내역은 빈칸인 경우가 상당함에도 “친환경 제품 교체”라는 수사적 표현은 감탄스러울 만큼 교묘하다. 더군다나 혈액암 관련 실제 노출자 규모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생각되는 노출자 대상의 전수조사, 도말검사 역시 아직도 언제쯤 시행되려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수반하는 ‘시설 개선’, ‘작업장, 대기 공간 분리’는 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문제였음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무지한 과거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 바뀌어야 함을 누구라도 인식하는 지금에도 변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정확한 화학 성분도 모른 채 물질을 사용하는 지하철 정비 노동자. 사진: 허명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보다 우선되는 자본의 이윤 논리를 깨야 한다!

더 간단하게, 더 저렴하게, 더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무마하려는’ 공사의 견고하고도 낡은 방식을 우리 노동자들이 여전히 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위험하고 불안한 현장을 개선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오히려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의 광풍은 모든 직렬과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공사의 모든 노동자를 더욱 위태롭게 내몬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혈액암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임은 멀지 않은 과거만 보아도 분명하다. 결국 이 모든 사태를 오롯이 감내하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안전하게 일하려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공사와 서울시는 인건비 절감을 외치며 더욱 적은 비용과 인력을 차근차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 뒤 공사가 자본의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얼마나 완강하게 나서는지 더욱 또렷하게 목도하고 있다. 일례로 공사 측에서 임의대로 구성해 운영하는 이른바 ‘혈액암 대책 TF’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억지스러운 핑계를 늘어놓으며 노골적으로 배제하다 최근 들어서야 참여를 시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싸움을 마주해야만 한다. 역무(사무), 승무, 기술, 차량의 모든 직종의 작업과 관련된 질환, 노동강도 과중화와 관리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지하철의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여 맞서야지만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고 회피하며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편해 보이는 방법을 찾아 헤매봤자, 그렇게 도착한 그곳에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